



남성고등학교 월간 대학입시정보

가슴에 비전을 품고
행동에 사랑을 담아
세상에 내놓는다

(063)841-3813(교문실)
(063)859-9150(전학실)
(063)858-3908(Fax)

제2025-여름
방학 특별호

2025년 7월 17일 (목)

교육연구부장 정현욱

CoN·T·E·N·T·S

- 고1 여름방학 전후 반드시 체크해야할 사항 / 1-3면
- 고2 학생이 알아야 할 여름방학 전후 체크 포인트 / 3-4면
- 고3 수험생을 위한 여름방학 전후 입시 전략 / 4-6면
- 2026 대입 주요 일정 / 7면



고1 여름방학 전후 반드시 체크해야할 사항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어느덧 한 학기를 보내고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와는 달리, 고등학교 생활은 곧 대학 입시와 연결되어 있기에 지금 시기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름방학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다음의 네 가지 전략을 실천해보며 의미 있는 방학을 보내길 바랍니다.

1.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점검 및 활동 정리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고등학교 학생부는 학년별 기재에서 학기별 기재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기록되는 내용도 많아지고, 활동을 정리하는 일의 중요성도 커졌습니다. 고1의 학생부 기록은 이제 막 시작되는 만큼, 향후 진학을 고려하여 기초가 되는 활동을 꼼꼼히 정리하고, 담당 선생님과 면담 등을 통해 누락된 내용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관심 있는 진로 분야와 연결되는 경험을 선택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선택과목 탐색 및 결정 준비

고1 여름방학은 선택과목에 대한 고민을 마무리할 시점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1학기 말이나 방학 중에 고1 학생을 대상으로 과목 선택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2학기 중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과목을 선택할 때는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진로 연계성'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면 더 몰입감 있게 공부할 수 있고, 성취도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반면, 교과 난이도나 수능과의 연계성도 고려해 균형 있는 선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은 자신의 진로 방향을 염두에 두고 충분히 탐색하며 결정의 기초를 다질 시기입니다.

다음 표는 서울대 모집단위별 권장과목입니다. 서울대 2028학년도 권장과목은 최소한의 이수 권장이므로 2028학년도 기준 뿐만 아니라 전년도 기준도 참고해서 과목을 선택하는게 필요합니다.

■ 서울대 2028 모집단위별 권장 과목

모집단위	권장 과목
의과대학	- 수학 진로선택 : 기하, 미적분Ⅱ - 과학 일반선택 : 생명과학 우선 이수 - 과학 진로선택 :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포함 3과목 이상
공과대학5개 물리학전공 물리교육과	- 수학 진로선택 : 기하, 미적분Ⅱ - 과학 일반선택 : 물리학 우선 이수 - 과학 진로선택 : 3과목 이상
화학부 화학교육과	- 수학 진로선택 : 기하, 미적분Ⅱ - 과학 일반선택 : 화학 우선 이수 - 과학 진로선택 : 3과목 이상
생명과학부 생물교육과	- 수학 진로선택 : 기하, 미적분Ⅱ - 과학 일반선택 : 생명과학 우선 이수 - 과학 진로선택 : 3과목 이상
천문학전공 지구환경과학 지구과학교육	- 수학 진로선택 : 기하, 미적분Ⅱ - 과학 일반선택 : 지구과학우선 이수 - 과학 진로선택 : 3과목 이상
공대 5개	기계공학, 전기정보공학, 원자핵공학, 조선해양공학, 항공우주공학
모집단위	권장 과목
인문	- 제2외국어/한문 1과목 이상

3. 교과 기본 개념 확립

현재 중학교까지와는 달리, 고등학교에서는 교과서 개념을 깊이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2028학년도 수능 개편 방향에 따르면, 교과의 기본 개념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융합적 사고력이 핵심으로 강조됩니다. 여름방학 동안에는 1학기 학습 내용 중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개념을 다시 정리하고, 문제를 통해 응용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 후에야 실전 문제 풀이도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4. 과목별 학습 습관 형성과 보완 전략

고등학교에 들어와 처음 맞는 여름방학은 앞으로의 학습 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혹시 1학기 성적이 기대

에 미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조금해하거나 성급하게 방향을 바꾸기보다는 학습 태도를 점검하고 기본기를 다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신이든 수능이든 결국은 '공부하는 습관'과 '집중력'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이번 방학 동안에는 특히 어려웠던 과목, 이해가 부족했던 단원을 스스로 점검하고, 짧은 시간 안에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부분부터 집중해보세요. 작은 성취를 쌓아가다 보면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동기도 함께 자라게 됩니다.

계획표 작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이어리를 작성하라는 것도 사실은 자신이 했던 활동을 기록하는 의미도 있지만, 해야 할 일을 계획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학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월 계획, 주 계획, 일 계획, 그리고 하루 일과 시간 계획까지 철저하게 세워서 학습해야 합니다.

■ 여름방학 계획서 작성시 체크 사항

영역	유의 사항
주 계획	△ 7일 중 하루는 비워두고, 계획에서 못한 부분은 비워 둔 날 처리한다. △ 학원 수업 일, 자기주도 학습 가능 일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 국어_수학_영어는 매일, 사회_과학은 격일로 배정한다.
일 계획	△ 일 계획은 50분 학습, 10분 휴식을 기본으로 작성한다. △ 학습량이나 학습시간보다 집중도가 더 중요하다. △ 계획 상 완료하지 못한 부분은 체크해서 비워 둔 요일에 처리한다.
생활 계획	△ 주변정리 : 본격적인 수험생활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는 생활의 단순화이다. · 모든 스트레스의 근원은 공부나 시험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 관계이다. · 관계의 맺고 끊음이 확실해야 한다. (여름방학 2~3주만 친구 만능!) · 오락, 게임, 인터넷, TV시청, 휴대전화의 중독에서 단호히 벗어나야 한다. △ 수면조절 : 잠자기가 적절하면 학습효율을 높일 수 있다. · 기억력, 집중력 향상, 컨디션 관리를 위해 6시간 내외가 적합하다. ·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생체리듬을 유지할 수 있다. · 반드시 12시 이전에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고 다음날을 위해 잠자리에 들자.

고1의 여름방학은 짧지만, 이후 학습과 진로 설계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의 노력이 나중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며, 알차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 1학년 여름방학 전후 체크 사항 ◎

- ▶ 1학년 진로희망 확인
- ▶ 2학년 교과 이수 과목 선택
- ▶ 학습 관련 주계획, 일계획 작성
- ▶ 1학기 교과별 수행평가 및 과제 탐구 정리
- ▶ 2학기 교과별 과제탐구 계획
- ▶ 부모님과 대화(다이어리, 계획표)

고2 학생이 알아야 할 여름방학 전후 체크 포인트



2차고사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다가온다. 고2 학생에게 여름방학은 입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전, 학습과 진로를 재정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3학년처럼 당장 원서를 쓰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방학의 태도와 선택이 2학기 내신 성적과 내년 입시 전략을 좌우한다. 특히 고2 2학기는 학생부 기록의 완성도와 진로 방향을 확정하는 핵심 시기이므로, 지금부터의 준비가 필요하다.

○ 하나, 학생부 점검과 탐구 활동 구상
방학 초반에는 학생부의 현주소를 꼼꼼히 점검하자.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 자율·진로

활동이 진로 방향과 연계되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2학기 활동에 반영해야 한다. 앞으로 진행될 수행평가에서는 교과 지식을 단순 암기하는 것보다 주제 탐구, 발표, 글쓰기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전략적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자율활동·진로활동에는 진로 관련 독서, 소규모 프로젝트 등 심화 탐구를 계획해 기록의 완성도를 높이자. 생활기록부는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나의 성장을 보여주는 스토리임을 잊지 말자.

○ 둘, 내신 전략 수립

3학년이 되면 진로 선택 과목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과목이 성취도(A, B, C)로만 기록된다. 따라서 2학년 2학기 내신 성적은 실질적인 등급 경쟁에서 마지막 기회다. 방학 동안 1학기 성적을 바탕으로 강점 과목과 약점 과목을 구분하고, 강점은 더 강화하고 약점은 집중 보완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수행평가 비중이 높은 과목은 미리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내신 점수는 단기간의 벼락치기보다, 계획적 학습이 성패를 가른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 셋, 모의고사 대비 전략

2학기가 시작되고 한 달 후면 9월 모의고사가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 내신 준비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모의고사도 전략적으로 챙겨야 한다. 특히 내신 기간이 끝난 시점은 수능형 문제 감각을 끌어올릴 절호의 기회다. 그동안 치른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해 약점 과목은 기본기를 다지고, 강점 과목은 부족한 단원이나 유형을 집중 공략하자. 최근 수시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므로, 모의고사 대비를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

○ 넷, 진로 탐색과 학과 조사

목표가 뚜렷한 학생은 학습 방향이 명확하다. 그러나 목표가 불분명한 학생은 짧은 거

리도 멀리 돌아가야 하는 상황을 맞는다. 여름방학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시간이다. 대학 학과별 교육과정, 직업 세계를 조사하고, 관련 전공 온라인 강좌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자. 관심 분야의 뿌리를 찾으면 학습 동기와 목표가 분명해지고, 학생부 기록도 자연스럽게 진로와 연결된다.

여름방학은 재충전의 시기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시기다. 남은 기간 동안 학생 스스로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길 바란다. 특히 최근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일부 정시 전형에서도 학생부를 참고하는 추세다. 이는 단순한 시험 점수뿐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서 보여준 성실함과 주도성이 입시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따라서 2학기에도 수업 참여, 수행평가, 비교과 활동 등 학교생활 전반을 충실히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정에서도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학교생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3 수험생을 위한 여름방학 전후 입시 전략



2차고사가 끝나고 머지않아 여름방학이 시작된다. 고3 수험생들에게는 2차고사 및 모의평가(이하 모평) 결과로 인해 마음이 복잡할 수 있고, 마지막 학교 시험이 끝났다는 생각에 자칫 긴장이 풀릴 수 있는 시기다. 그러나 지금부터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입시 결과가 크게 달라 질 수 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남은 기간을 효율적으로 보내야 한다. 여름방학은 기간은 짧지만 수능 및 대학별 고사 대비 등 해야 할 일이 많은 시기인 만큼, 목표 대학 진학을 위한 가장 유리한 방법에 우선순위를 두고 학습 계획을 세워야 한다. 2차고사 이후 수험생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 하나, 학생부 검토

2차고사가 끝난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학생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먼저, 2차고사 성적을 반영한 자신의 최종 내신 성적을 확인하고, 희망하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시킬 만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교과전형과 종합전형 중 한 가지 전형만 지원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에 두 전형 모두를 염두에 두고 수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위해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통해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 역량 등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충분히 드러나는지 점검해야 한다. 학생부 경쟁력을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학교 선생님을 통해 조언을 구하도록 하자. 아직 1학기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부 검토 시점은 빠를수록 좋다.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남은 기간을 활용해 최대한 보완할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둘, 수시 지원 전략 수립

내신 성적과 학생부 검토가 끝났다면, 수시 지원 전형에 대해 윤곽을 잡아 놓는 것이 좋다. 이때는 수능 모의평가 성적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학생부교과전형과 논술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대학의 종합전형에서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하므로, 희망 대학의 수능최저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충족 가능성을 판단하여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수

능 준비 상황과 모의평가 성적을 바탕으로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본 후, 해당 대학들을 기준 삼아 수시 지원 대학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 셋, 대학별 고사 준비

논술, 면접 등 대학별 고사를 수능 전에 실시하는 대학들이 있다. 논술전형에서는 서울시립대와 연세대가 9월 27일로 가장 먼저 시행한다. 이어 가톨릭대(의/약 제외)는 9월 28일에 실시한다. 단국대와 을지대, 홍익대가 10월 18~19일 중에 치르며, 상명대가 10월 31일과 11월 1일에 걸쳐 논술고사를 본다.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은 10월 25일 가천대(가천바람개비)를 시작으로, 고려대(계열적합전형), 광운대(면접형), 동덕여대(동덕창의리더), 상명대(상명인재), 성균관대(과학인재, 성균인재_스포츠과학과, 사범계열), 한국항공대(미래인재) 등이 수능 전에 실시한다. 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명지대가 교과면접전형 면접을 10월 25일에 실시한다.

수능에 임박해서 치르는 대학별 고사는 수험생들에게는 부담일 수 있고, 그만큼 대학별 고사 준비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해당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다면, 여름방학 때부터 주 1~2회 일정 시간을 들여 대학별 고사를 준비하는 것이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일 수 있다. 기출문제, 예상문제를 풀거나 문답을 해 보면서 경쟁력도 높이고 자신감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 넷, 수능 준비

정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은 물론이고, 수시에서 끝내고자 하는 수험생들에게도 수능 준비는 필수다. 대학별 고사 준비로 인해 공부시간이 부족하거나, 수시 지원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수능과 수시 준비의 균형을 맞추는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학습 목표와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 먼저, 스스로 집중할 수 있는 최대 학습 시간을 파악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학습 목표는 단순한 점수 향상보다는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이다.

6월 모의평가를 되짚어보면서 문제 유형, 풀이 시간, 시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취약점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목표나 방학기간 동안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자. 예를 들어, 수학 풀이 시간이 부족하다면 비교적 쉬운 문제를 빠르게 푸는 연습과 고난도 문제의 기출풀이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각각 계획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름방학 고3 수험생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①수시모집 지원과 수능시험 학습 사이에서 균형 있는 전략을 짜라=여름방학 과제 1순위는 수능시험 실력 향상. 하지만 여름방학 내내 수능시험 공부에만 매달려선 안된다. 수시모집의 비중이 높은 만큼 수시모집 전략을 짜는 데도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9월 모의평가가 실시되고 곧이어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이어진다. 여름방학 동안 지원 가능한 대학의 입시 요강을 꼼꼼히 분석하고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한다.

②자신의 강·약점을 파악한 뒤 취약 영역을 집중 보완하자=여름방학은 약점을 보완할 기회다. 아직 자신의 성적 분석이 끝나지 않았다면 서둘러야 한다. 3월부터 6월 모의고사까지의 성적표, 3개년 간의 학생부를 정확히 분석하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자. 유난히 취약했던 문제 유형이나 영역이 있다면 여름방학 때 집중적으로 보완하도록 한다.

③스스로 학습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자=이맘때면 수험생을 잡기 위한 학원들의 '여름방학 마케팅'이 집중된다. 성적이 '드라마틱'하게 오른다고 광고하는 문구에 현혹되선 안된다. 고3 여름방학은 학원 커리큘럼이 아니라 자신만의 공부 커리큘럼이 필요한 때다. 개념 보충 설명, 고난도 문제 풀이는 인터넷 강의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공부한 것을 스스로 소화해나가는 학습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④구체적인 학습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라=집중력을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 계획이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하루 10시간 이상 자율학습 시간을 확보하고 자율학습 시간에 자신이 무엇을 공부할지, 어디까지 공부할지 구체적으로 정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보자. 리스트를 완성해나가며 성취감을 높이는 것도 학습 능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⑤상대적으로 비중이 커진 탐구 과목을 철저히 학습하라=국·영·수뿐 아니라 탐구 과목의 학습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다.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되면서 상대적으로 탐구 과목의 비중을 높인 대학이 많다. 탐구 과목도 개념을 이해하는 과목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말고, 개념 정리를 확실히 해둔다는 생각으로 과목별로 개념 정리노트를 만들어보자.

⑥자기소개서에 답아야 할 소재를 정하고 초안을 작성하자=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하는 수험생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다. 특히 자기소개서는 단기간에 완성하기 어렵다. 지난 고교 생활 중 의미 있는 경험과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내 글을 쓴다는 게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다. 여름방학은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소개서 초안을 완성하는 데 더없이 좋은 시간이다. 다만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써야 한다.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건 학습 계획을 실천하는 데 방해가 된다.

⑦수시 박람회 및 입시기관의 대입 설명회를 꼭 참석하자=각종 수시 박람회가 열린다. 여러 대학의 입학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도 수험생이 놓치지 말아야 할 행사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각 입시 기관의 대입 설명회가 열린다. 각 기관이 여는 입시 설명회장에서 수시모집 자료집, 배치표, 알짜 정보 등을 꼭 챙겨오도록 하자.

⑧야행성 습관은 절대 금물!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갖자=방학 기간에는 스마트폰, SNS, 게임의 유혹을 이기기 어렵다. 야행성 습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밤에 늦게 자면, 일찍 일어나기 힘들다. 낮에 학습 집중력도 떨어진다. 규율과 규제가 느슨한 방학일수록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하루의 일과를 수능시험 당일 시험 일정에 맞춰 학습 효율을 높이는 게 좋다.

⑨무더운 여름철, 건강관리는 수험생 스스로 하자=여름철 폭염, 차가운 에어컨 온도로 생기는 여름철 감기는 수험생도 피해갈 수 없다.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여름철, 수험생 스스로 건강 관리에 관심을 갖자. 인스턴트 식품은 가급적 피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게 좋다. 특히 여름철 장염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수험생의 체력 관리는 곧 실력 관리다.

⑩지칠수록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하자=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점수가 좀처럼 오르지 않으면 슬럼프에 빠지기 쉽다. 떨어진 자신감, 실패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대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다.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짧은 명상을 통해 자신이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려보자. 꿈을 이룬 모습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며 자신감을 키워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 본 자료는 교육 언론 베리타스 알파, 내일교육, 김진건의 입시 메카 자료를 인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 2026 대입 주요 일정

구분	일정	세부내용
수시모집원서접수	2025.9.8(월) ~ 9.12(금)	대학별로3일이상실시
대학별논술/면접등	2025.9.13(토) ~ 12.11(목)	대학별자율실시
수능	2025.11.13(목)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제2외국어/한문
수능성적통지	2025.12.5(금)	-
수시모집합격자등록	2025.12 중순	대학별일정확인필요
정시모집원서접수	2025.12.29.(월) ~ 12.31(수)	3일간진행
정시모집가군전형	2026.1.5(월) ~	대학별일정확인필요
정시모집나군전형	2026.1.13(화) ~	대학별일정확인필요
정시모집다군전형	2026.1.21(수) ~	대학별일정확인필요
정시모집합격자발표	~ 2026.2.2(월)	대학별발표
정시모집합격자등록	2026.2.3(화) ~ 2.5(목)	3일간진행
추가모집	2026.2 중순이후	정시등록마감후실시